

노인여성의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김양원 · 임지영

대전대학교 응용산업대학 패션디자인 · 비즈니스 학과

A study on clothing weights and Cornell medical index of elderly women

Yang Weon Kim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Daejeon University

I. 서론

노인은 건강유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노인들은 주로 순환계 질환 및 소화계, 근골격, 결합조직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중 순환계 질환은 기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의복은 외부 온열환경과 1차적으로 접하고, 외부기후가 의복을 통해서 인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의복은 인체의 체온조절상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생체기능이 저하하게 되어 한냉자극에 대해서는 직장온의 강하도가 크고, 피부 혈류의 감소에 대한 반응개시가 늦으며, 피부온의 변화도가 적어서 저체온이 될 가능성이 크며, 열적 자극에 대해서는 고체온이 되기 쉽다고 한다(Wagner et al., 1974; Cena et al., 1986). 노인들은 의복과 같은 문화적 적응 수단에 의존하여 체온조절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의복은 인체의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어 다른 어떤 적응 수단보다도 인체가 효율적으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된 착의습관인 착의량이 노인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대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여성 198명으로 연령은 평균 66.2세였고, 체중은 53.5kg이었다. 조사 시기는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였다. 조사내용은 환경조건, 착의량, 한서감각, 건강관련변인, 의복기후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은 무학 25.3%, 고졸이상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잘 산다는 비율이 30%, 못 산다는 비율은 21.5%였다. 생활비용의 출처는 자녀로부터 얻는 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다.

2. 한서감과 의복기후 및 착의량

1) 한서감과 의복기후

노인들의 한서감 평균은 3.7로 쾌적대(따뜻하다~서늘하다)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신적으로 느끼는 한서감은 쾌적대(3: slightly warm, 4: comfortable, 5: slightly cool)에 속하는 사람은 92%였다. 조사당일 의복착용시 노인들의 의복기후는 의복내온도는 $33.5 \pm 1.4^{\circ}\text{C}$, 의복내습도는 $30.2 \pm 7.9\%$ 였다.

2) 착의량

가을철 착의량은 총착의량은 830.4g/m², 속옷량은 242.8g/m², 겉옷량 617.3g/m², 상의량 419.8g/m², 하의량은 420.4g/m²였다.

3) 내한내열성

이로 볼 때 노인들은 46% 이상이 더위를 타는 편이었고, 83%가 추위를 타는 편이어서 더위보다는 추위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관련변인

건강관련변인 중 신체적 증상에 관한 호소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았으며($p<0.05$), 학력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계층에서 신체적 증상에 관한 호소율이 낮았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호소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호소율은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관계가 없었다. 정신적인 호소율은 주관적인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4.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은 총착의량이 많을수록 일반적 호소율이 많았고, 신체

적 호소율과 정신적 호소율은 착의량과 관계가 없었다.

IV. 결론

노인들은 총착의량 830.4g/m²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이때 쾌적하게 느끼는 사람은 92%였으며, 의복내온도의 평균은 33.5℃, 의복내습도는 30.2%였다. 노인들은 더위보다는 추위를 더 느꼈으며 연령이 많아지고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신체적 호소율이 높았다. 정신적 호소율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 착의량과 건강관련변인과의 관계는 총착의량이 많을수록 일반적 호소율이 높았다.

참고문헌

Cena, K., Spotila, J.R., Avery, H.W.(1986), Thermal comfort of the elderly is affected by clothing, activ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SHRAE Transactions, 92(2).

Wagner J.A., Robins S., and Marino R.P. (1974), Age and temperature regulation of humans in neutral and cold environment, J. Appl. Physiol. 37. 562-565.